

# 이승엽 또 '한 방'

### 야쿠르트전 8회 솔로포 시범경기서 두번째 홈런

일본프로야구 이승엽(31·요미우리 라이온즈)이 시범 경기에서 두 번째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승엽은 15일 도쿄 진구 구장에서 벌어진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전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 5-5이던 8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왼손 투수 사토 마사루로부터 우측 펜스를 넘기는 솔로포를 터뜨렸다.

지난 9일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 오릭스 버펄로스 상대로 2007년 첫 아치인 투런 홈런을 터뜨린 이후 이승엽은 엿새 만에 짜릿한 순간을 봤다.

그러나 요미우리 마운드가 9회 동점을 허용, 6-6으로 경기가 끝나는 바람에 '역전 결승 대포'라는 수식어는 땔 수밖에 없었다.

이승엽은 0-5로 뒤진 4회 2사 2루의 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투수 이시카와 마사노리로부터 추격의 볼넷을 당기는 좌월 2루타를 터뜨려 2루 주자 다니 요시토모를 홈으로 불러 들였다.

지난 11일 한신전에서 우전 적시타로 결승타를 때린 이후 나흘 만에 나온 타점. 8회 홈런까지 합쳐 시범 경기 타점은 6개로 불어났다.

이승엽은 후속 루이스 곤살레스의 좌전 적시타 때 홈을 밟아 득점도 올렸다.

지난해 10승10패를 거둔 이시카와는 야쿠르트의 좌완 에이스로 지난 2002년 입단 후 5년 연속 두 자릿수 승을 올렸다. 일본프로야구에서 신인 때부터 5년 연속 10승 이상을 올린 이는 이시카와를 포함 역대 3명 밖에 없다.

이승엽은 2회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뜬공에 그쳤지만 4회에는 요미우리의 주포답게 이시카와의 볼 배합을 읽고 결대로 밀어치는 유연한 타격으로 안타를 생산했다.

3-5로 1점을 따라 붙은 6회 1사 2루에서는 삼진으로 돌아섰다. 8회 솔로홈런을 포함해 이날 4타수2안타를 기록한 이승엽은 시범 경기 타율이 0.296으로 약간 올랐다.

요미우리는 3번 오가사와라 미치히로가 1타점, 이승엽과 5번 곤살레스가 각각 2타점씩으로 5타점을 합작하는 등 클린업트리가 화려 시범을 펼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용병 '진퇴양난' 15일 안산에서 열린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신한은행)과 신한은행(삼성생명)의 경기에서 삼성생명 짝스(가운데)가 신한은행 강영숙(왼쪽), 전주원의 수비를 피해 골밑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63-55로 승리. /연합뉴스

## 전남선발 금 3

###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

전남선발이 2007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서 금3, 은5, 동3를 따냈다.

배정훈(성화대 1년)은 15일 경남 삼천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 일반 웰터급 결승에서 신성대학 김경운을 6-3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태형(전남과학대 1)도 남일반 미들급에서 금메달을 따냈으며 여자일반주 플라이급에 출전한 이경옥(전남과학대)도 역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고부 헤비급 김도희(전남체고 1)와 여고부 미들급 김현진(영광고1), 남고 밴텀급 박아문(영광실고 2)은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유광선(여수시청) 금

### 전국유도 男 100kg급이하

유광선(여수시청)이 제33회 회화경 전국 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유광선은 15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100kg급 이하 남자부 개인전 결승에서 용인대 송창현을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흥초등학교는 초등부 단체전에서 아쉽게 2위를 기록했으며 황진희(여수정보과학고 3)는 여자부 개인전 3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모비스 정규리그 우승

###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2006~2007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의 영광을 품어 안았다.

모비스는 지난 14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창원 LG와 홈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78-77로 승리, 34승 16패로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우승을 확정지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정규리그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모비스는 4월 7일 오후 3시 정규리그 4위와 5위 팀간의 6강 플레이오프(3전 2선승제) 승자와 4강 플레이오프(5전 3선승제) 1차전을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16일(금)
  - ▲삼호코리아컵 국제프로 불링대회(14: 10-KBC)
  - ▲프로농구(KCC-삼성)(18: 50-SBS스포츠), (KTF-모비스)(18: 50-Xports)
- 17일(토)
  - ▲PGA투어 아놀드파머 인비테이셔널 2R (04: 00-SBS스포츠)

## 男 현대 VS 대한항공, 女 도로공사 VS 현대 챔프전 티켓 놓고 격돌

### V리그 내일부터 포스트 시즌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은 힐스테이트 2006~2007 시즌 프로배구 V-리그의 최강자를 가리는 포스트시즌이 오는 17일 막을 올린다.

지난 해 12월23일 개막해 14일까지 6라운드, 80여일 간의 페넌트레이스를 마친 프로배구는 오는 17일부터 정규리그 2~3위 팀이 3전 2선승제의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여기서 이진 팀은 24일부터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삼성화재, 흥국생명과 5전 3선승제로 챔피언결정전을 벌여 진정한 남녀부 왕중왕을 결정한다.

오는 17일 시작되는 플레이오프에서 남자부 현대캐피탈(2위)-대한항공(3위), 여자부 도로공사(2위)-현대건설(3위)이 챔피언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현대-대한항공 승자는 프로 출범 후 처음 챔피언에 올라 통산 열 번째 겨울 리그 우승을 노리는 삼성화재와 24일부

터 우승컵을 놓고 싸운다.

여자부에서는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이 17일부터 플레이오프를 벌인다.

한편 '특급 용병' 레안드로 다 실바(삼성화재)와 레이첼 반미터(도로공사)가 올 시즌 남녀 프로배구에서 나란히 득점왕에 올랐다.

레안드로는 총 득점 717점을 기록, MVP 라이벌인 보비(674점·대한항공)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보비는 공격 종합에서 53.14%의 높은 성공률로 손 투니(50.62%·현대캐피탈)에 앞섰고, 서브에서는 세트당 0.528개의 에이스를 기록해 0.367개의 레안드로를 압도하며 공격부문 2관왕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레이첼이 총 득점 666점을 얻어 득점왕 타이틀을 얻었다.

서브에서는 황연주(흥국생명)가 세트당 0.357개를 기록해 최고 강서브의 주인공이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출 [가만교육] 염마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파워(P) 편집(E) 보기(V) 즐겨찾기(S) 도구(T) 도움말(H)

주소 http://www.gitan.co.kr/

# 기탄 홈페이지에 오면 1등 노하우가 보인다

1등 염마들은 매일매일 기탄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한글 크로마이드부터 세계지도, 급수환자포스터까지  
우리가 아쉽게 꼭 필요한 학습자료도 무료로 받아보고  
상대입자들의 교육노하우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검색창에 '기탄교육'만 쳐 보세요  
오래할지 못했건 차액교육의 세련된 세계가 펼쳐집니다.

**gitan.co.kr**

기탄 인터넷회원이 되세요  
기탄 홈페이지에 유료로 회원가입하시면 당해연도 교육자료에 대한 100%비용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최단 10시간 100%가 환불됩니다.

기탄 인터넷회원 혜택  
\* 회원등급: 112586-1007

기탄수익: 세고려수익: 한국어: 영어: 한자: 중국어: 급수환자포스터: 기탄  
세계정책: 50원 95,000원 | 무리안책: 50원 95,000원 | 세계정책: 50원 95,000원  
우리말: 50원 95,000원 | 세계정책: 50원 95,000원 | 지역정책: 50원 95,000원

기탄인터넷회원 혜택